

높았던 파이널A 벽...광주FC “내년엔 더 높은 곳으로”

시즌 최종전 울산에 0-3 패 파이널A ‘첫승’ 도전 실패 K리그1 복귀 첫해 6위 마감

광주FC의 파이널A ‘첫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광주는 K리그1 복귀 첫해 창단 첫 ‘파이널 A’를 이루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는 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와 K리그1 2020 27라운드 원정 경기이자 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는 0-3패를 기록하면서 6승 7무 14패(승점 25)로 2020시즌을 마감했다.

광주는 9월 20일 성남FC와의 22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기적 같은 ‘파이널A’ 진출을 이뤘다.

처음 밟은 무대는 생각보다 험난했다.

포항원정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케 한 역전 장면은 연출했지만 아쉬운 판정 속 3-5패를 기록했고, 안방에서 만난 대구FC에는 0-1로 지면서 6위가 확정됐다.

앞선 대결에서 3-3 무승부를 연출했던 전북현대와의 경기는 1-4 패로 끝났다. 상주상무와의 세 번째 만남 역시 0-1 패배로 마무리됐다.

마지막 울산전에는 광주팬들은 물론 K리그 팬들

의 시선이 쏠렸다.

2위 울산이 이기고 1위 전북의 패배가 기록되면 마지막 날 다시 우승팀이 바뀌는 상황.

우승을 위해 울산은 사력을 다해 광주를 상대했다. 울산 입장에서 광주는 앞선 두 차례의 만남에서 모두 무승부를 안겨준 까다로운 상대이기도 했다.

광주는 초반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전반 8분 이으뜸이 프리킥 키퍼로 나서 직접 울산 골대를 겨냥했고, 16분에는 엄원상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몸을 날리게 했다.

하지만 전반 34분 울산의 원동재가 길게 올린 공이 운빛가람의 발로 향했다. 골키퍼 이진형이 공을 막아냈지만 이미 골라인을 넘어선 뒤였다.

울산의 일격에 흔들린 광주는 2분 뒤 주니오의 왼발에 다시 골을 내줬다.

김주공이 전반 막판 좋은 패스와 슈팅으로 분위기를 전환에 나서지만, 울산의 골대는 열리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다시 울산을 공략했다. 여봉훈이 오른쪽에서 침투한 정준연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이번에도 세밀함이 부족했다.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이근호의 도움을 받은 이동경의 골로 결국 0-3으로 최종전을 끝냈다.

울산은 세 골을 몰아치며 승자는 됐지만 웃지는 못했다.

이날 대구와 최종전을 벌인 전북이 조규성의 딸



K리그1 광주FC 선수단이 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의 2020시즌 최종전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티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이 그대로 전북의 차이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K리그2에서는 제주유나이티드가 한 경기를 남겨두고 미리 우승을 확정했다.

제주는 이날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3-2로 이기며,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수원FC를 따돌리고 우승팀이 됐다. 제주는 강등된 지 1시즌 만에 ‘K리그2 우승팀’ 자격으로 다시 1부리그로 올라온다.

반대로 부산아이파크는 1시즌 만에 2부리그로

내려간다.

전날 최종전에서 K리그1 ‘생존왕’ 인천유나이티드가 FC서울을 1-0으로 꺾고,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은 성남FC와의 최종전에서 1-2로 지면서 최하위를 확정, 강등팀이 됐다.

K리그1 데뷔 시즌을 보낸 광주FC 박진섭 감독은 “시즌 마지막에 부상자가 많이 생겼다. 순위가 확정된 후 동기부여가 많이 부족했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패배는 아쉽지만 강팀을 상대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한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내년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또 “승격 후 초반엔 어려움이 많았다. 선수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정말 잘해주었고, 약간의 운으로 파이널A까지 갈 수 있었다”며 “내년엔 광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선수들과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르사 ‘최악의 스타트’ 개막 6경기 승점 8로 12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거함’ FC바르셀로나(바르사)가 2020-2021시즌 개막 6경기 동안 승점 8을 따내는 데 그치면서 2002-2003시즌 이후 18년 만에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일(한국시간) 스페인 알라바 비토리아-가스테이스의 멘디소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라베스와 2020-2021 프리메라리가 8라운드에서 1-1로 비겼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바르셀로나는 0-1로 끌려가던 후반 17분 알라베스의 호타 펠레테이로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우위 상황에서 동점골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무승부로 바르셀로나는 정규리그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 그치는 부진을 이어갔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라운드가 연기돼 다른 팀들보다 1-2경기 덜 치른 상태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개막 6경기 동안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12위에 랭크됐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시즌 초반 성적은 2002-2003시즌 이후 18년 만에

최악이다.

바르셀로나는 2002-2003시즌 개막 6경기에서 2승 2무 2패에 그쳐 승점 8을 따내는 데 그쳤고, 최종 6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리오넬 메시, 안수 파더, 앙투안 그리에즈만, 우스만 댐벨레 등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선발로 내보내며 부진 탈출을 노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명적인 골키퍼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1분 제라르 피케가 네투에게 백패스하자 알라베스의 루이스 리오하가 재빨리 네투에게 달려들어 볼을 빼앗아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을 0-1로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17분 알라베스의 펠레테이로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우위를 차지했고, 1분 뒤 그리에즈만이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그리에즈만의 시즌 1호골이었다.

메시는 9월 28일 비야레알과 3라운드에서 전반 35분 페널티킥으로 정규리그 1호골을 넣은 이후 5경기 동안 도움 1개만 추가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메시의 무득점은 무려 505번째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충격의 완패’ 랭킹 42위 소네고에 0-2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에르스테뱅크 오픈(총상금 140만9510유로) 8강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단식 3회전에서 로렌조 소네고(42위·이탈리아)에게 0-2(2-6 1-6)로 완패했다.

경기 시작 후 4게임을 연달아 내준 조코비치는 결국 1세트를 2-6으로 패했고, 2세트 들어서도 게임스코어 1-2 이후 내리 4게임을 빼앗겼다.

1시간 9분 만에 탈락이 확정된 조코비치는 이날 소네고의 서브 게임을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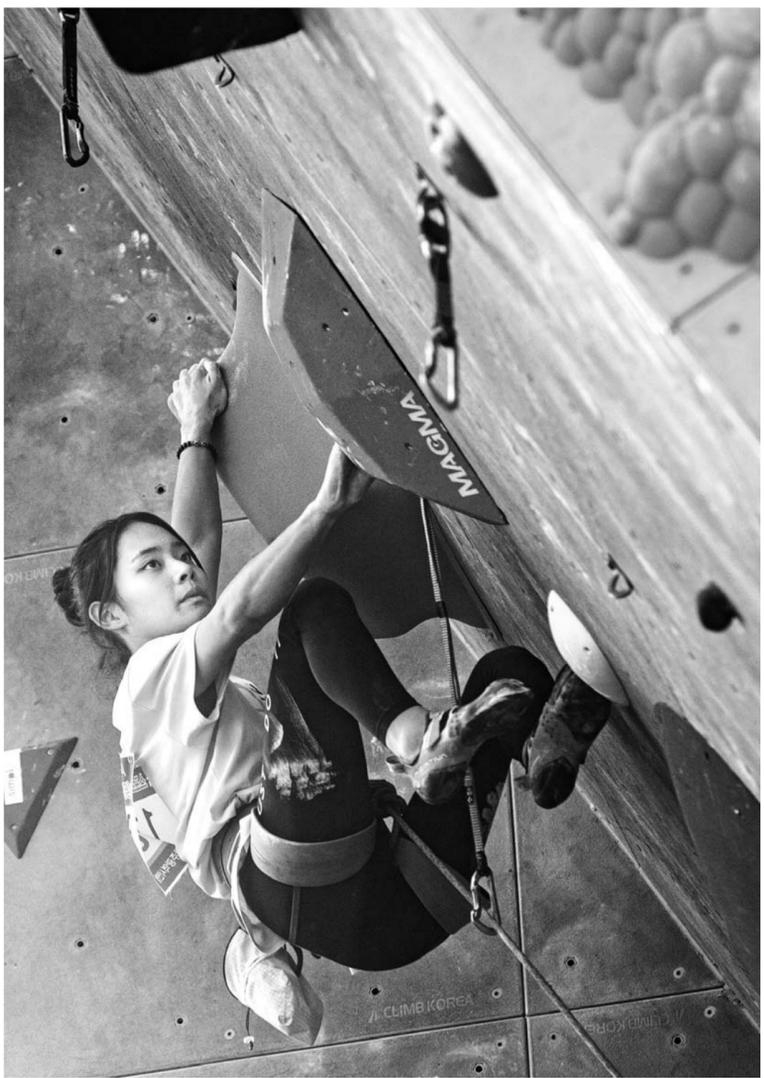
1세트에서는 소네고의 서브 게임에서 볼과 5포인트만 획득했다. 공격 성공 횟수에서도 소네고가 26-7로 압도했다.

소네고는 이번 대회 예선 결승에서 패배, 본선에

나오지 못할 뻔했지만 원래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던 디에고 슈와르츠만(9위·아르헨티나)이 어깨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러키 루저’ 자격으로 본선에 합류했다.

조코비치가 ‘러키 루저’에게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코비치의 이번 시즌 성적은 39승 3패가 됐다.

조코비치가 한 경기에 3게임밖에 따내지 못한 것은 2005년 1월 호주오픈 1회전 당시 세계 4위 마라트 사핀(러시아)과 경기 0-3(0-6 2-6 1-6) 패배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그때 조코비치의 세계 랭킹은 188위였다. 또 ‘러키 루저’가 세계 랭킹 1위를 잡은 것은 2017년 6월 조던 톰프슨(호주)이 1위 엔디 머리(영국)를 물리친 이후 이번이 약 3년 4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끝까지 오른다”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임승진)이 주최한 제31회 광주시전국클라이밍대회가 지난 31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열렸다. 정예진(송덕고 1)이 여자부 리드클라이밍 결승에서 고난이도의 인공암벽을 오르고 있다. 정예진은 5분 12초로 4분 49초를 기록한 서예주(경기 하늘빛중학교)에 이어 2위에 입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장하나 ‘가을의 여왕’ SK네트웍스·서경 클래식 우승 영암 출신 유해란 신인왕 확정

장하나(28)가 ‘가을 여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장하나는 1일 제주 서귀포시 핀코스 골프클럽(KLPGA) 투어 SK네트웍스·서경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이번 시즌 들어 13차례 대회에서 7번이나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만큼 빼어난 경기력에도 우승이 없어 애를 태웠던 장하나의 시즌 첫 우승이다.

우승 상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장 하나는 상금랭킹 7위(3억8699만 원)로 올라섰다.

KLPGA투어 통산 13번째 우승을 거둔 장 하나는 절반이 넘는 7승을 9월 이후에 쏟아내며 ‘가을 여왕’의 입지를 다졌다.

그는 2012년 KLPGA투어 첫 우승을 포함해 5승을 10월에 올렸다. 지난해에는 10월에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과 BMW 챔피언십 등 2차례 특급 대회를 석권해 7억 원이 넘는 상금을 거둬들였다.

11월 첫날이지만 1~3라운드가 10월에 열린 사실을 고려하면 10월에만 6번 우승한 셈이다.

전날 3라운드를 최민경(27)과 공동 선두로 끝낸 장 하나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예고보다 1타 적은 1타를 줄였지만 거둔 타게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24)는 6번 홀(파4) 더블보기 이후 10번 홀(파5) 샷이글에 이어 버디 2개를 잡아내는 뒷심을 발휘, 2타차 공동2위(5언더파 283타)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상금 1위와 평균 타수 1위를 굳게 지켰다.

4타를 줄인 박민지와 2언더파를 낀 김지현과 전우리(23)가 공동2위 그룹에 합류했다.

공동9위(1언더파 287타)에 오른 영암 출신 유해란(19)은 이번 시즌 신인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